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해요'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지난 14일 열린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서 유장현 광주시장이 학생들과 함께 댄스 공연을 한 뒤,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한 채 기념촬영을 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에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 제공>

21일 광주 시민의 날... 시민 참여 축제 풍성

올해 주제 '사람'... 17개 프로그램 시장실·시의회 본회의장 개방도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광주시장실과 시의회 본회의장 체험을 시작으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또 시청사 앞 광장과 야외공연장에는 시민들이 음악과 춤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장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2016 시민 페스티벌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열아가는 '광주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시민의 날은 그동안 직할시 승격 기념일인 11월1일에 개최해오다, 지난 2010년 5·18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을 물리치고 도정에 입성한 5월21일로 날짜를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날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진데다 행사도 기념식 위주로 지겨워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난 1월 초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17개의 시민참여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들은 열린 공간에서

일일 시장이 되어 모형 결재서류에 서명하고, 일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며 안전을 통과시키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막식 행사 시간은 최소로 줄였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관례적으로 낭독하던 축사를 과감히 생략해 일일 시민시장 2명(남·녀)과 시민 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대신하고, 시의회 여성의원 5명이 축하 노래를 합창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행사장에서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시민 콘서트, 시민 마켓, 시민 갤러리, 시민 댄스파티 등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동맹의 하나로, 대구시에서는 51회째를 맞는 광주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해 공연을 펼치고,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과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 개막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제51회 시민의 날을 기획·연출하는 김규광 총감독은 "그동안 광주시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시민의 날에 주인공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외공원으로 가족과 '예술소품' 가실래요?

광주 중외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가족 예술소품(Art Picnic)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호응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 예술소품은 지난 7일 첫 행사에 이어 14일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 '예술소품' 자연에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소통을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두 번째 행사에서는 작가의 작품 소개와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와의 만남인 '아트살롱', 한우 프로젝트의 이재문 작가의 예술작품을 담은 커피와 커피인문학이라는 주제의 강의 '아트앤커피', 그림

책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요리를 만드는 '아트앤북',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정원 '아트가든' 등이 펼쳐졌다. 또 젊은 예술인이 참여하는 '작가마켓', 내 꿈이 날아오르는 풍선아트, 버블놀이, 신나는 마술이 펼쳐지는 '아트놀이', 피크닉에서 만나는 맛있는 요리 '푸드맘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중외공원에 채송화, 봉선화 등 우리 꽃과 야생화를 식재해 꽃 정원을 만들고, 한 바퀴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로와 느티나무 마실길 등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예술공원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보건부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광주시 동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결과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자치구가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건강

가꾸기 사업, 금연 환경 조성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업운영 적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당뇨병 환자의 높은 흡연율과 합병증 발생 감소를 돕기 위한 '당뇨인 담배 OUT 프로젝트'는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과 시민의 책임'

광주트라우마센터 국제회의...내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제4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재활과 사회적 정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노라 스베아스(Nora Sveaass,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심리학 교수와 기초발제를 하고 강릉주센터장, 잉가 아거(Inger Agger, 덴마크) 심리학자, 문요한(진실의 힘 이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난다나 마나통가(Nandana Manatunga, 캔디안권사무소, 스리랑카) 신부, 고해경 크리스천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수 '치유공간 이웃' 대표가 발

제위원으로 참여한다. 강릉주 센터장은 "최근 국제사회는 고문·국가폭력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정신과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세계 각국의 치유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을 살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2016 광주아시아 포럼'의 한 세션으로,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르신이 들려주는 오월 이야기

오늘·내일 효령노인복지타운

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노인들이 어린이의 5·18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펼친다. 16일부터 이틀간 효령노인복지타운 공연장과 식당, 잔디광장 등에서 효령타운을 찾아오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오월 정신' 관련 교육과 '오월 주먹밥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는 현실에서

5·18의 진실을 알리고 이를 바르게 기억하고 전달하는 일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5·18묘역 등에서 5·18바로알리기 등 5·18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사업단 어르신들이 효령타운 체험마을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5·18바로알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또한 이날 직원들이 직접 오월 주먹밥을 만들어 이곳 식당을 찾은 노인들과 체험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도 마련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기록관, 유네스코 등재 5주년 전시

시민의 기록 '진실의 주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 및 개관1주년 기념' 기획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진실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이후 진실규명 과정을 회고하고 누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세계기록유산 원본 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5·18 조각·왜곡의 기원, 교과서 속 5·18, 5·18 왜곡의 재등장 등을 소개하며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

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의 참사를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의미로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공간, 영상으로 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야기 등 관람객들이 5·18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최근 5·18왜곡 현상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5·18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이후 세대들 사이에 5·18진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시는 '누가 진실을 밝혀왔는지'를 기록물을 통해 전달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